

# 개성공단 사태, 정동영 복귀 디딤돌 되나

복귀 명분찾기 고심 속 타이밍 맞아 떨어져... 국민의당 “정 전의원 역할 절실”

정동영 전의원이 정부의 개성공단 자동 전면 중단 결정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은 정 전 의원의 주요 업적 가운데 하나로서 이번 사태가 정계 복귀 디딤돌이 되는 모습이다. 정 전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가슴이 아프다. 어떻게 만든 개성공단인데 그 실상도 의미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문을 닫았다”며 정부의 개성공단 자동 전면 중단 조치에 아쉬움과 허탈감을 고스란히 전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는 과거 냉전시대로 돌아가 국가 리스크는 더 커지게 될 것이다”라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했다. 또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박 정권의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무지와 무능의 소산이다”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 정 전 의원은 정계복귀의 명분이 찾기가 쉽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지난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 패배 이후 순창에서 지내면서 한 발 비켜 서 있었다. 야당 뒷받침을 등에 업고 정계복귀를 낙관하던 분위기는 옛말이 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자연스럽게 정계복귀 타이밍과 맞아 떨어지는 등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 전의원 지지자들은 지금 그의 역할이 왜 필요하고 필연적으로 정계복귀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대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지지자는 “정 전 의원이 정치권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정 전 의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정 전 의원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전략적 기능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봤다. 한국형 통일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정 전의원의 역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 정 전의원의 역할

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모습이 다. 당내 입지를 굳히고 뚜렷하게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 전 의원 영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1일 이기택(완산갑), 한명규(완산을), 조배숙(익산을), 이용호(남원순창), 정현율(익산시장) 등 국민의당 예비후보들은 정 전의원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들은 “정동영 전 대선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를 이어온 정치 지도자이면서 우리 전복이 배출한 소중한 정치지도자이기도 하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독주를 막고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의당과 함께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 저 총선 출마합니다

더민주 최도식 예비후보, 정음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와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소개한 2030 청년후보 12인 중 유일한 호남 청년인 최도식 국회의원 예비후보(정음 더불어민주당)가 11일(목) 오전 정음시청 브리핑룸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표를 던졌다. 최도식 예비후보는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는 정음, 호남의 변방으로 취급받는 전북의 현실을 지적하며 더욱 변화하고 혁신해서 젊은 정음, 강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바뀌고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최도식 예비후보는 20대 총선이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안철수와 문재인을 나누는 정치논쟁이 된다면 정음은 젊어질 수 없고 전북은 강해질 수 없다며 정치논쟁 아닌 정책대결이 되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도식 예비후보는 또 무능한 경제, 눈물 흘리는 복지, 불안한 안보, 거꾸로 가는 역사와 식 등 국민들은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대내외적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며 무능한 정부, 불평등한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당당하고 강한 야당을 만들어 국민들의 눈물을 닦고 정권을 탈환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도식 예비후보는 지난 5일(금) 정음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설 명절을 맞아 민심을 경청하는 ‘경청 투어’를 시작해 지난 8일간 정음 곳곳을 걸어 다니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도식 예비후보는 순창 출신으로 정음 서초, 배영중, 정주고, 광주대학교(경영학 석사)를 졸업하고, 18대 국회의원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민선 5기 광주광역시 시장 비서를 거치며 지난 10여 년 동안 중앙정치와 지방자치에 경험하면서 정치와 행정의 실무를 탄탄하게 다져왔다. /정음=김태환 기자

김연근 예비후보, 민생 알맹이 공약 4가지 발표

김연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이하 김 후보)는 11일 오전 11시경 익산시청 상 황실에서 ‘민생만 남고 껌대기는 가라!’ 라는 모토를 가지고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후보는 “지역과 시민을 위한 민생 알맹이 16 공약 중 4가지를 발표 하면서 ‘동네 정치가 나라 정치이다’ ‘지방에서 했던 일, 중앙에 가서 완전하게 해오겠다! 정책으로 한판 승부 걸어’ 슬로건 등을 외치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으로, 2할 자치 벗어나자!(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제출), ▲지역인제 쿼터제로 지역의 아를 팔팔 채운의무화(신규채용 35% 의무화), ▲빛에 저당잡힌 청춘을 수렁에서 건져내겠다.(국립대학 반값등록금, 학자금대출이자 감액,소득별 차별화된 대출 상환 계획 제공, ▲3만3천여명 농민에게 고정수입 보장하겠다(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 보장법률 제정, 농민 건강검진 보장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 유치) 등의 일부공약 선포했다”고 출마의 의지를 굳게 강조했다. /익산=김양원 기자



박종길 예비후보 “삼기산단공사 예산 확보할 것”

박종길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익산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1년 넘게 중단된 익산삼기산단단지 진입도로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 국가예산 추가확보 공약을 제시했다고 11일 오전 10시경 밝혔다. 박 후보는 “익산삼기산단 진입로 도로공사는 삼기면의 제3산업단지 및 연무IC를 잇는 길이 1186km, 폭20m의 왕복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지난 2010년 시작된 진입도로 공사에는 총1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박 후보는 “산단진입도로는 기업유치와 북부권 활성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졌으며”제정여건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는 정부를 설득해 국비 추가 확보하는 방안 외에는 대책마련이 어려운 상태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국비 예산 추가 확보해 조기 완공 해서 기업유치, 북부권 활성화 및 좋은 일자리창출 등을 하겠다”고 공약을 천명했다. /익산=김양원 기자



국민의당 광인회 전 김제시장, 총선 출마 선언

국민의당 광인회(66) 전 김제시장은 전북 김제 부안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광 예비후보는 1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상을 바꾸려면 가장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지역과 전북을 살리고 정권교체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대장정의 첫 걸음을 고한인 김 제·부안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광 예비후보는 “선거 때만 되면 표를 달라고 전복을 이용만 하는 가짜 야당이 아니라 차별받는 전복을 대변하고 전복의 뿔을 행기는 진짜 야당과 함께 전복의 정치적 자존심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 예비후보는 김제 출신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전북 도의원과 김제시장 3선을 역임했다. /신광영 기자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꼭 지켜내겠다”

더민주 김성주 의원 “탄소산업 육성도 전면에 내걸 것” 정동영 거취 관련 “정치노선 볼때 복당 자연스러운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은 11일 오전 전주MBC 라디오(유기하의 시사토크)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지켜내는 것과 탄소산업을 키우는 정책을 전면에 내걸 것이라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 의원은 “실 연휴 동안 만났던 전주 시민들로부터 보육, 교육, 취업 등 생활

과 맞닿은 문제들을 해소해달라는 목소리를 들었으며, 특히 전복을 발전시켜 달라는 요구와 함께 전복으로 이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꼭 지켜달라는 청년들의 바람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총선 정책선거와 관련하여 김성주 의원은 “지금의 시대정신은 경제 불평등



해소와 사회 양극화 완화에 있다.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사회전반에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당 비대위 산하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으로서 기획단 산하 5개 분야인 더불어 성장, 민생복지, 사회 양극화 해소, 인권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본부에서 좋은 정책 공약들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 도내 공천경쟁 본격화

더민주-새누리 전북도당 16일까지 후보자 공모

4.13 총선 전북지역 공천경쟁이 본격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공천 후보자 공모를 오는 15~16일 이틀 동안 진행기로 했다. 이번 후보자 접수는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현재 예비후보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1개 선거구에 21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완산을 3명, 익산을 3명, 남원순창 3명, 덕진, 군산, 익산갑, 정음, 무진장임실 각각 2명 등이고 완산갑은 유일하게 전무한 상태다.

새누리당 전북도당도 11~16일까지 6일 동안 지역구 후보자 공천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25세 이상)로서,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이다. 제출 서류는 당 홈페이지(http://www.seuniparty.kr)에 제시된 25종의 서류를 작성 발급받아 중앙당에 제출해야 된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변동이 있는 경우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전북지역 새누리당 예비후보수는 11개 선거구에 모두 8명이다. /신광영 기자

이석권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무소속 이석권 국회의원 예비후보(이하 이 후보)는 최근 익산시 무왕로 1100(어양동 638-2) 우리들빌딩 3층 301호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황리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 일환 무덕관 회장, 정현율 전 행정부지사, 유창현 교장 등 5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치러졌다. 이 후보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개소했고 조율해가거나 도움을 주신 분들을 초청해서 본인 이 출마를 하게 된 동기 및 공약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개소식 기념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익산=김양원 기자



## 北, 개성공단 폐쇄·군사통제구역 선포

남측인원 전원 추방

북한 당국이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자동 전면 중단에 따른 보복조치에 나섰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을 2월11일 17시(한국시간 17시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며 “추방되는 인원은 사람(개인용품) 외에 다른 물건을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동결된 물자는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

고 밝혔다. 이어 “남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북남 사이의 군 통신과 관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며 “개성공단과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광명성 4호의 완전 성공은 자주권과 조선반도의 평화, 지역의 안전을 담보하는 자위적 조치”라며 “수소탄 시험과 위성 발사는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주적 권리의 떳떳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15 이후 10여년간이나 공

동변영의 동음을 울려온 개성공업지구는 박근혜정권에 와서 전면폐쇄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발적 조치는 파탄산언이고,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조평통은 “개성공업지구를 전면 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조평통의 이같은 성명에 대해 “현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 측 인원이 안전하게 귀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 더민주 컷오프 24일째 발표 예정

도내선 2~3명 포함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컷오프가 언제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까지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24일께나 발표될 예정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을 20% 배제법위에 포함하면 컷오프 대상자는 현재지 출제 된다. 하지만 이번 공천배제는 탈락자들을 우선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다가 집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문이 갈고 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은 127명의 현역의원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기로 했었다. 규정대로라면 지역구 106명 중 21명, 비

례대표 21명 중 4명이 배제 대상이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이 탈락하거나 불출마를 선언, 도내 정가에서는 지역구 의원중 1명만 배제하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임되면서 “현역의원 추이패기”를 예고해 낯날을 접할 수 없게 됐다. 일단 현역 의원 대부분 컷오프에 연연하지 않고 나름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지만 관측자들은 칼끝이 어디로 향하느냐를 놓고 예측이 분분하다. 도내 정가 한 관계자는 “최근 현역의원 20%보다 더큰 물갈이설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면서 “어떤 의원이 배제될지 도무시 감을 잡을수 없지만 전복은 2~3명 안에서 대상자가 포함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지자체장 선거활동 제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전 정책 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한되는 행위는 ▲정당의 정당 정책과 주의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

연회, 정전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정당 합당 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신광영 기자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근거 마련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한중 강화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이학수 의원(정읍2)은 오는 16일 개최하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그동안 전북도는 축산관련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실시해 왔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축산 및 수의분야 관련 전문가들로 가축방역심의회가 구성된다. 심의회는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시행하고 가축전염병별로 긴급방역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개정조례안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해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관리대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물 소비 문화 등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체계적인 방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신광영 기자

